

# 전두환 '5·18 헬기사격' 정치 논쟁으로 몰아갈 듯

## 광주재판 전락 들여다 보니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씨 측이 5·18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정치적·논쟁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전략을 펼쳤다. 전씨 측은 특히 지난해 헬기사격을 확인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까지도 부정하는 등 재판 내내 반성은커녕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해 참다 못한 일부 방청객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쟁점 사안으로 3가지를 주장했다.

첫째는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한 회고록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즉 헬기 사격이 사실인지 여부다. 둘째는 전씨가 일부러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사실임에도 이를 모른 채하고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지칭했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다.

다시 말해 전씨가 회고록 작성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했느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헬기 사격은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으로 전씨 회고록의 헬기 사격 부정은 개인의 표현 자유 영역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헬기사격은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지칭한 전씨의 행위가 모욕은 될 수 있지만,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씨측 주장은 곧 헬기 사격의 실제적

진씨 측 변호인, 지난해 헬기사격 확인 특조위 결과도 부정 시종일관 거짓말 하는 전씨측 태도에 방청객 거세게 항의 검찰 측 "국방부 특조위·군기록 헬기사격 확인... 명예훼손"

진실을 재판부가 밝혀야 하고, 실제적 진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전씨가 이를 허위인지 알고 주장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 변호사는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설을 반박하는 정황과 함께 헬기 사격설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최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증거를 토대로 도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지난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헬기 사격' 결론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국과사 탄흔발생 원인 추정 정이 과학적이지 않으며, 특조위가 헬기 사격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종전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최근 밝혀진 정부의 조사결과조차도 부정한 것이다.

헬기사격에 대해서도 "정권 바뀔 때마다 (결론이 바뀌는) 대중의 논쟁적 사안"이라며 "특조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규명한 것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매몰돼 판단한 것"이라며 정치화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규명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

고서, 관련 군 기록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이를 증언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출범해 올해 2월 활동을 마감한 국방부 5·18 특조위는 "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에게 실탄사격을 가했다"고 밝혀 광주항쟁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5·18 역사현장인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최상층인 10층에 남은 100여 발의 총알 자국은 계엄군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

광주시 의뢰로 총탄 흔적 분석보고서를 펴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사각도 등을 통해 정치 비행 상태에서의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해 최근 조사 결과는 모두 '헬기 사격'을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 후 쟁점을 묻는 질문에 공보판사를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피고인이 회고록 작성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조비오 신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표현인지 여부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희 기자 lucky@kwangju.co.kr



5월 어머니들의 분노 전두환씨가 광주지방법원으로 출두한 11일 광주지법 법정 앞에서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전두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임 행진곡' 부른 시민들... "전두환 물러가라" 외친 초등생

이모저모 재판정 세우려 2년 기다렸다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전두환 측이 "5·18 헬기사격은 없었다"며 부인하자 5월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분노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 회원들은 11일 오후 전 대통령 재판을 끝까지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전씨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참고 기다려왔다"며 "전씨가 재판에 출석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민들은 광주지법 앞에서 오월 어머니집 회원 등을 위로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씨의 사과를 촉구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정가' 등을 불렀다.

오죽하면 초등생들까지 ○...광주지법 맞은편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전두환 물러

가라"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낮 12시30분께부터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2층에서 전씨가 도착하는 것을 바라보며 "전두환은 사죄하라"라고 구호와 노래를 외쳐 불렀다.

곳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시민들은 "오죽했으면 초등학생까지도 사죄를 하라고 외치겠느냐"면서 "전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를 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씨 보러 조퇴한 초등남매 ○...초등생 남매가 전두환씨를 보기 위해 학교를 조퇴하고 광주지법을 방문했다. 광주시 서구 화개초등학교 다니는 박은우(여·13·6학년), 박은혁(10·3학년) 남매는 11일 학교를 조퇴하고 광주지교 육청에 근무하는 아버지 박상철(45)씨와 함께 광주지법을 찾았다.

이날 박 남매는 "전두환은 참회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국민의 명령이

다. 전두환은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라는 피켓을 선보였다.

박양은 "오늘은 전씨가 광주에 오는 역사적인 날로 아버지에게 부탁해 법원을 찾았다"면서 "오늘 재판을 통해 전두환이 광주시민들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심으로 김밥 싸운 전두환 ○...11일 낮 12시34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두환 일행은 재판(오후 2시30분)이 열리기까지 두시간동안 법정대기실에 대기하며 미리 준비해온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법정대기실에는 전씨와 이순자씨, 민정기 전 비서관, 경호담당관 등 4명이 있었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이었으나 취재진들이 따라 붙는 바람에 이를 취소하고 광주지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오전 8시32분 연희동 출발...광주서 4시간 머물러

### 연희동~광주 긴박했던 하루

오전 11시10분 광주 탄천휴게소

시속 200km 넘게 달리기도

낮 12시17분 광주 도착

주변 도움없이 법원으로 입장

오후 2시29분 피고인석에

진술 40분 총 재판 시간 76분

오후 3시36분 시민에 막힌 전두환

법정 머물다 4시15분 탑승

오후 4시40분 법원 빠져나갈

'광주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88)씨가 광주지방법원에 머문 시간은 불과 4시간이었다.

전씨는 11일 오전 8시32분 서울서 서대문구 연희동 집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 부인 이순자씨와 탑승했다. 이후 전씨가 탄 차량은 서울을 빠져나갈 때까지 취재진의 차량이 따라 붙자 차선 변경을 자주하며 빠르게 시내권을 빠져나갔다.

전씨가 다시 모습을 보인 곳은 오전 11시 10분께 충남 광주 탄천휴게소(순천방면)다. 10여분간 머문 전씨는 취재진이 다시 접근하자 서둘러 차량에 타고, 한때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기도 했다.

전씨가 광주톨게이트를 지나 광주 땅에 발을 들인 시각은 낮 12시17분께다. 법정 도착 전 점심을 먹을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전씨가 탄 차량은 광주지방법원으로 직

행했다. 광주지법에 도착한 시각은 낮 12시34분으로 예정보다 1시간여가 빨랐다. 광주지법은 전씨가 거동이 불편할 것으로 보고 휠체어까지 준비했지만, 전씨는 주변인의 도움없이 법원으로 들어섰다.

전씨는 법정 대기실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후 2시29분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당초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 시간은 76분이나 소요됐다. 전씨측 변호인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모두 진술에만 40분 이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오후 3시46분 재판이 끝나고 전씨는 곧바로 차량을 타고 떠나려 했지만, 시민들의 항의에 막혀 30여분간 법정 대기실에 머무르다 오후 4시15분께 겨우 차량에 탑승했다. 전씨가 탄 차량은 기다서대를 반복하다, 오후 4시40분께 광주지법 정문을 빠져나갔다. /김용희 기자 kimyh@

###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광주광역시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골드에셋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

## 혈당조절

###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2박스 구매하신 분께 안달분 더 드립니다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혈당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010-3598-7080

### 수강생 모집

##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